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6월 24일(주일) 제1202호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순백의 마리아들이 부르짖는다

6월 27~29일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 4,625명 참가 주제 강의와 기도회, 일터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드디어 이번 주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 가정과 북한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사랑의 힘'을 주제로 진행된다.

마리아행전에는 기도하는 순백의 마리아 4,625명(마리아행전 3,390명, 일터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1,235명)이 참석한다.

이번 마리아행전에서는 오전·오후 강의와 저녁 강의가 이어진다. 오

전·오후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 일터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인 저녁 강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요일별 주제 강의와 기도회도 이어진다. 주제 강의는 27일 '믿음의

힘' 이재훈 담임목사, 김영애 권사(온누리교회, <갈대상자> 저자), 28일 '소망의 힘' 벤 토레이 신부(예수원), 김성근 목사(노원한나라은혜교회), 29일 '사랑의 힘'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지선 교수(한동대, <지선아 사랑해> 작가)가 한다. 일터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에서는 27일 유기성 목사, 28일 이지선 교수, 29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흰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 혼잡을 피해야 한다. 당일등록은 불가능하다.

문의: 02-3215-3667

02-570-727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7월 15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교회가 먼저 실천하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7월 15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교회 올 때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한다.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 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이용해도 좋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증을 발부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

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이 대상이다.

사회선교본부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교회 주변에 절대 불법주차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에 오히려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본지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캠퍼스,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간증, 아웃리치 현장을 담은 생생한 사진, 후기를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96

e-mail: onnuriweekly@gmail.com

오늘 양지 온누리교회 창립 6주년

오전 9시, 11시 창립감사예배

오늘(24일)은 양지 온누리교회 창립 6주년이다. 오전 9시와 11시 양지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양지 온누리교회 공동체에서는 창립 6주년 기념 선교바자회를 개최한다. 수익금은 국내외 아웃리치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2012년 국내 9번째 캠퍼스로 창립됐다. 초대교회처럼 선교사들을 섬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다.

도육환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양지 온누리교회가 Acts29 비전빌리지와 함께 온누리 선교 영성과 비전의 산실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떨어진 것처럼 마주한 곳이 몽골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몽골이 눈에 아른거리고, 되돌아가고픈 마음이 굴뚝같다.”

몽골 부리아트족을 섬기고 있는 김경찬 선교사의 눈물겨운 사랑고백이다. 김 선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마미총 증후군(허리 디스크 일종)’을 앓게 되었다. 지금은 재활치료 차 한국에 나와 있다. 하루빨리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몽골로 돌아가는 게 그의 가장 큰 소망이다. 자신보다 부리아트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의 부탁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들에게 당부하던 그 장면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저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리아트족을 향한 김경찬 선교사의 사랑고백

김경찬 선교사와 아내 이지혜 선교사는 몽골 도르노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리아트족을 섬기고 있다. 도르노트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700km나 떨어진 곳이다. 광활한 초원을 자동차로 10시간 넘게 달려야 나오는 외진 곳이다. 바로 그곳에 몽골의 소수민족 부리아트족이 살고 있다. 부리아트족은 1996년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해외 미전도종족 중 하나이다. 김경찬 선교사는 2007년부터 부리아트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몽골의 부리아트족은 한국인과 유전인자가 가장 비슷한 종족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이 가고, 꼭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유전학연구소가 몇 년 전 민족 간 유전적 거리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북방민족 가운데서도 한국인과 부리아트족이 유전자 75%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바로 부리아트족이다. 형제자매처럼 흡사한 외모를 가졌지만 신앙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 그들은 사머니즘을 숭배한다. 부리아트족 말로 무당이 ‘샤면’ 일 정도로 사머니즘이 그들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어릴 가나 서낭당과 돌탑이 있고, 자연의 정령에 절을 하고 굿을 한다. 영적 전쟁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김경찬 선교사가 부리아트족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거듭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한 곳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리아트족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은 선교사다”

김경찬 선교사가 선교지로 몽골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몽골의 ‘몽’자도 모를 정도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김 선교사가 파송될 당시 중앙아시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던 때라 그도 중앙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 뿐이다. 더욱이 늙고 병든 부모님이 마음에 밟혀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다.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18년 동안이나 누워 계셨어요. 제가 몽골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것이 전해지고 나서 아버지께 ‘한 달 후에 몽골로 떠나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버지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러



차장사르(몽골 설날) 때 성도 집을 방문한 김경찬(왼쪽 첫 번째), 이지혜 선교사(오른쪽 첫 번째)와 자녀들.

고 한 달 뒤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어요. 원래 계획대로 제가 몽골로 갔다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도 반대하고 나섰다.

“어머니께서 차라리 미국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서 선교를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께 ‘네 아들은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음성을 듣고 허락하셨어요.”

국절 끝에 김경찬 선교사 부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첫 아이를 데리고 몽골 도르노트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몽골에서의 사역은 만만치 않았다. 혹독한 추위와 언어문제, 자녀교육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다. 그런데 김경찬 선교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다른 문제였다.

“선교사가 없어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양육하던 사람들이 과거의 버릇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들이 과거로 돌아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도르노트 지역은 몽골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혼율 1위, 성병 발생 1위, 미혼모 증가율 1위 등 가정해체와 성문란은 물론이고, 폭력과 살인 등 각종 사건사고의 집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이곳은 날씨가 춥고 밤이 긴 탓에 술을 마시는 문화가 발달했다. 주변 사람들이 죄다 술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라보니 유혹도 강하다. 아무리 공을 들여 양육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김경찬 선교사는 큰 좌절감을 맛보아 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부리아트인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종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재활치료에 전념하는 단 하나의 이유

몽골의 선교 환경은 갈수록 나빠졌다. 몽골 정부의 감시와 제재가 심해졌다. 김경찬 선교사는 날로 심해지는 몽골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이 선교하고 싶어 비자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2016년 3월 러시아로 향했다.

“한국에 가서 비자를 변경을 하는 것보다 러시아에서 하는 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이 돼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비자를 받아 사역에 임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렸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러시아 도착한 첫날,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사역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통증에 크게 당황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저녁이 되어서야 러시아의 한 도립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병명은 마미총 증후군이었다. 마미총 증후군은 응급수술을 요하는 대표적인 허리 질환이다. 진단과 치료가 늦으면 하지 통증 및 마비, 방광 기능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병이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더라도 25~50%의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병이다. 김경찬 선교사의 아내 이지혜 선교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친정어머니가 25살에 과부가 되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과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지라 나도 과부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네 남편을 바쳐라. 내가 도르노트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네 남편은 내 날개 아래 잘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생각났다. 아비규환 같던 마음이 순식간에 평화로워졌다. 남편이 다시 일어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술도 무사히 잘 끝났다.

“나중에 한 의료선교사님께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몽골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하반신 마비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 욕심조차 선하게 바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김경찬 선교사는 왼쪽 다리 신경이 손상되어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없다. 기약 없는 재활치료를 반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찬 선교사는 아프고 난 다음 사역이 더 잘 풀리고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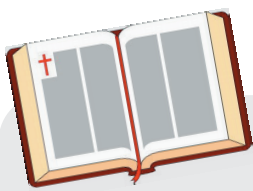
“몽골에 있는 교회 땅 부지를 정부에서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지하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렸어요. 새 교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 예배당을 건축해주라고 누군가 헌금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놀랐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가정해체 문제가 심각한 부리아트족을 위해 아버지학교 세미나를 열어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 작년과 올해 두 차례나 아버지학교 세미나를 열었다.

김경찬 선교사에게는 질병도, 후유증도 장애물이 아니다. 그가 재활치료에 전념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다시 몽골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몽골에 다시 가고 싶어요. 재활치료를 잘 받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보다 부리아트족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부리아트족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편지: bora605@hanmail.net



주일강단



박형준 목사

에스더 2장 17절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하수어로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왕비가 된 것 그 자체가 은총이 아니라 에스더가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은혜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에게 은총이 주어진 것 또한 그녀가 완벽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개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아하수어로 왕은 아 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주었습니다.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개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 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개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개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1~6절).

모르드개가 아니라 하만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모르드개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만이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만을 아 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 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한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원수관계일 수밖에 없는 족속이자 여호와와 진멸의 대상입니다. 3장에 등장하는 하만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모르드개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울함 때문입니다. 모르드개가 하만의 위치에 올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신앙과 믿음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것처럼 모르드개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모르드개가 유독 하만에게만 절하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말렉 족속에 대한 정서 때문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물으니까 모르드개가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르드개의 마음에는 세 가지 이유가 조금씩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모르드개의 행동과 태도가 모든 유대인들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모르드개에 분노했습니다. 모르드개 한 사람만 처단해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지 않자 유대인들을 몰살시켜야 분이 풀리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이 일로 페르시아 대제국에 흩어져 이름도 없이 미미한 족속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이름조차 떠올리지 않던 사람들이 민족의 뿌리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견해에 빠져들거나 휘둘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행동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처럼 살아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 유된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혼탁한 세상 안에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과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승장구하던 하만의 몰락

“아하수어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 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열두째 달, 곧 아달 월이었습니다. 그 후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자 왕은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 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네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들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했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어로 왕의 이름으로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됐습니다”(7~12절).

하만은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정월에 하늘이 내려주는 날짜를 받아서 이 일을 틀림없게 하겠다는 주도면밀한 계산이 깔려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달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에게 열두 달이라는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요, 하만의 계락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비라는 의미를 가진 ‘푸르’라는 단어에서 부림절이 생겨났습니다. 제비 뽑힌 그날이 죽음의 날인 줄 알았는데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슬픔의 날인 줄 알았는데 기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다스리는 어리석은 아하수어로 왕은 하만의 음모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왕과 신하가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 민족이 몰살당한다

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약속하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다 민족만의 몰살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몰살이요,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수어로 왕은 인정반지를 빼주며 하만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만들도록 부추겼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만이 승승장구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인장 반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꿈꾸고 동경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만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드셨기 때문에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험악한 길이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만이 하는 일마다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승승장구는 마귀에게 불들린 승승장구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명령으로 세워진 나무에 달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수산 궁에도 그 칙령이 공포됐습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수산 성 안은 술렁거렸습니다”(15절).

유다 민족을 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전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축배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수산 성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모든 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입니다. 흥해가 내 앞을 가로 막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이 길을 막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같보리 언덕위로 높이 세워질 때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이 임박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여망이 사라져 갈 때 하늘의 소망을 붙드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여성 선각자들 2

한 평생 사랑하고, 나누고, 배우고, 헌신한 여인들

최나오미 선교사, 의사 박에스더, 방애인 선생, 장선희 선생

지난 3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장은 많은 여성들의 기도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여성들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다”고 말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들의 헌신과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은 수많은 여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막 오르는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이 기대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리아행진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선각자들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고자 한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선교사 ‘최나오미’



1893~1949

한국 여성 최초로 시베리아 얼어붙은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여인이 있다. 최나오미 선교사다. 최나오미 선교사는 1873년 11월 19일 개성에서 태어났다. 꽃다운 나이에 김성룡과 결혼했는데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간주 되는 시절이었다. 남편은 매일 그녀에게 폭언을 쏟아 부었고, 시어머니는 차갑고 싸늘한 눈빛으로 멸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이었다. 1896년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개성을 선교지기로 삼고,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계획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897년 한국 전도인 김홍순과 폴리어 선교사를 개성으로 파송했다. 당시 개성 사람들은 파란 눈에 긴 코를 가진 외국인들이 마냥 신기했다. 외국인 선교사들을 구경하려고 선교사들이 머물던 농막(농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김홍순과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 파란 눈의 선교사들을 구경하러 온 인파 속에 최나오미도 있었다. 그녀는 파란 눈의 선교사를 구경하러 다니다 선교사들과 가까워졌다. 자연스럽게 개성교회(폴리어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 그녀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그녀가 예수를 구주

로 영접하자 시댁 식구들의 탄압이 거세졌다. 그런데 탄압이 거셀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다. 남편의 폭력만큼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 대신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예수 믿고 난 이후 최나오미는 시어머니를 전보다 더욱 깎듯이 모시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꼭 참석했다. 변화된 최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시댁 식구들이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를 밟던 남편 김성룡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날 잘못을 회개했다. 시어머니도 변화된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고부는 세례를 받고 최씨는 이름을 ‘나오미’, 시어머니는 ‘안나’로 개명했다.

1901년 선교사들이 최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을 원산으로 불렀다. 그곳에서 최나오미는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여성들을 만난다. 최나오미는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격려했다. 그녀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가 통했는지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나오미는 보다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마침 1907년 11월 개성에 여자성경학교가 설립되었고 그 학교에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개성 여자성경학교 교수로 활동했다. 함성여자신학교 교수, 개성남부교회 소속 전도부인, 서울의 종교교회 전도사로도 활약했다.

1920년 12월 6일 서울 종교교회에서 서울, 개성, 원산, 춘천 등지의 여성 대표 82명이 모여 남감리교회 조선여성선교회를 조직했다. 그 자리에서 최나오미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최나오미는 국내외 선교활동을 계획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들의 힘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1922년 5월 원산에서 개최된 조선여성선교회 전국대회에서 시베리아 선교를 결정했다. 최나오미는 자신이 직접 시베리아로 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렇게 최나오미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선교사가 되었다.

최나오미 선교사는 시베리아로 건너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망명한 한국인들을 전도했다. 1923년부터는 시베리아 여덟 곳에서 여성교회를 조직했고, 사경회 1차례, 강연회 15회, 기도회 30회를 인도했다. 당시 시베리아 선교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했다. 공산주의의 탄압은 물론이고, 일본영사관, 마적들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나오미 선교사는 굴하지 않았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곳곳에 전도했다. 최나오미 선교사는 3년 동안의 시베리아 선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남은 일생은 지방전도에 전념했다. 최나오미 선교사는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1949년 조용히 주님 곁으로 돌아갔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1876~1910

구한말, 격변의 시기에 이름을 3번이나 바꾸면서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던 여성운동가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박에스더’다. 그녀는 이름을 3번이나 바꿀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름을 바꿀 때마다 삶의 방향도 함께 바뀌었다.

박에스더는 1876년 3월 16일 서울 정동에서 한 선비의 넷째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첫 이름은 김점동이었다. 그녀가 10살 무렵 미국인 선교사들이 정동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가난한 선비인 그녀의 아버지가 밥벌이를 위해 아펜젤러 선교사의 집에서 자질구레

한 일을 도왔다.

그즈음 미감리회 여성선교사 스크랜턴이 정동에 이화학당을 열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서양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서양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직접 거리의 고아를 찾아가거나 가난한 집을 방문해서 딸을 무료로 교육시켜주겠다고 부모들을 설득했다.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깨어있던 김점동의 아버지는 딸을 이화학당에 입학시켰다. 이화학당에서는 영어, 산수, 일반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는데 스크랜턴 부인이 중점을 둔 것은 주기도문, 찬송, 예배의식 등의 신앙교육이었다. 신앙교육 덕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조선의 소녀들이 진리를 깨달았다. 김점동도 믿음의 확신을 얻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김점동은 세례를 받고 나서 이름을 김에스더로 바꿨다.

김에스더는 이화학당에서 수많은 학문들을 접했는데 영어에 관심이 많았다. 그 덕에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김에스더를 눈여겨보던 셔우드 선교사가 정동에 있는 보구여관(스크랜턴 선교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환자들을 열심히 섬기는 셔우드 선교사의 모습은 김에스더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그때부터 김에스더는 의료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셔우드 선교사는 조선 여성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학반을 만들었다. 김에스더도 셔우드 선교사가 만든 의학반에 들어가서 기초의학을 공부했다. 그러던 중에 박유산과 사랑에 빠졌다. 박유산은 셔우드 선교사의 남편인 의료 선교사 홀의 조수였다. 두 사람은 1893년 5월 24일 결혼했다. 김에스더는 서양의 결혼 풍습에 따라 남편의 성을 갖게 됐다. 그래서 김에스더에서 박에스더로 또 다시 이름을 바꿨다.

1894년 5월 홀과 셔우드 선교사 부부는 미감리회 한국 선교회 결정에 따라 평양으로 파송되었다. 박에스더와 박유산 부부도 그들과 동행했다. 당시 평양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최나오미 선교사, 의사 박에스더, 장애인 선생, 장선희 선생

전쟁으로 축대밭이 되어 있었다. 죽은 시체들이 나뒹굴었고 각종 전염병까지 창궐했다. 홀 선교사는 평양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열병에 걸려 서울로 후송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만다. 슬픔에 빠진 셔우드 선교사는 남편을 양화진 묘역에 안장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에스더는 셔우드 선교사에게 자신도 미국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간청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셔우드 선교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박에스더는 1895년 2월 뉴욕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했다. 같은해 9월에는 간호사로 근무하며 의료실습을 했다. 1896년 10월에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했고, 1900년 6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인 최초 여성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박에스더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남편 박우산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6년 동안 낯선 미국 땅에서 일하다 급성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박에스더는 슬픈 마음을 뒤로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보구여관을 맡아 여성의료에 전념했다.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며 병원에 올 수 없는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기도 했다. 평양 맹아학교, 간호사 양성원, 여자 성경학원 교수로도 활동했다. 박에스더는 자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아픈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은 살피지 못했다. 과로로 쓰러져 34세의 짧은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녀의 인생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녀는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선각자였다.

거리의 천사 '장애인 선생'



1909~1933

“언젠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맞보기 원한다.”

한평생 고아들의 어머니로 살다간 장애인 선생이 한 말이다. 그녀는 작은 예수 그 자체였다.

장애인 선생은 1909년 9월 26일 황해도 황주군 황주읍 벽성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매우 부유한 황주읍교회 교인이었다. 장애인은 부유한 가정형편 덕분에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황주읍교회에서 설립한 양성학교에 입학했다. 졸곧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많은 급우들의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1921

년 3월 최고 우등생으로 양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숭의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 학교 교장이었던 스누크 선교사와 많은 교사들은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이 매우 겸손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학업에 열중했는데 행복한 학교생활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1923년 스누크 선교사가 잠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숭의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동맹휴학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추석을 맞아 몇몇 학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의 성묘를 가려다 발생한 일이다. 학생들이 기숙사 사감이었던 나진경에게 외출 허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성묘는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관습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선언했다. 이 사건은 선교사와 교사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은 그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더 이상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기를 원해서 숭의여자고등보통학교를 떠나 개성에 있는 호수돈여자학교로 진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장애인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 당시 신여성들의 로망이었던 이화여자전문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 생각은 달랐다.

“여자가 대학까지 가서 뭐하느냐”며 진학을 거세게 반대했다. 어쩔 수 없이 꿈을 접고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장애인은 꿈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교사라는 직업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결국 3년 동안의 전주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장애인은 모교인 양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고향에 머무는 동안 형식과 관념에 찌들어 있던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었다. 그것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흥회에도 참석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다. 신앙이 회복될 즈음 전주에서 봤던 가난한 사람들이 떠올랐다. 장애인은 다시 전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자신이 받은 예수의 사랑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931년 9월 장애인이 다시 전주로 돌아왔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짙은 화장과 세련된 의상으로 치장하던 그녀가 수수하면서 검소한 여인으로 바뀌었다.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변해있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는 동료 교사인 최약실, 김선례, 홍석호와 거리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했다. 전도 대상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나병환자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번은 나병으로 얼굴과 몸이 끔찍하게 일그러진 사람의 살결을 만지며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

장애인은 말 그대로 거리 of 천사였다. 거리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이었다. 장애인은 특히 고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당시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7년 전주 YWCA 이효덕 회장과 전주 서문밖교회 배은희 목사가 서문밖교회에 고아원을 설립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장애인은 그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북지역 교회를 순회하며 모금을 했고, 자신의 월급을 아껴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보탬을 주었다.

학교, 고아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장애인은 병에 걸려 24살 짧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줬다.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나눠준 '장선희'



1893~1970

민족의 운명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전통 수예로 민족의 얼을 지켜낸 여인이 있다. 바느질 열사 장선희다. 장선희는 1893년 2월 19일 평양 박구리에서 태어났다. 당시 조선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장선희가 태어난 바로 다음 해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장선희의 가족은 혼란을 피해 강원도 회양 산골에서 5년 동안 생활했다.

정국이 안정되자 장선희의 가족은 황해도 안악을 거처로 삼았다. 그리고 1905년 안악읍 교회에 여학교인 안신소학교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장선희를 그곳으로 보냈다. 안신소학교는 교회 내에 지어진 학교였다. 자연스럽게 장선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장선희가 안신소학교에 다닐 당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했다. 장선희의 아버지는 국채보상운동(국채를 갚음으로써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민중들 사이에 전개됐던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어려운 살림에도 직접 그린 그림과 수공예품을 판 돈을 국채보상운동에 냈을 정도였다. 어린 장선희도 작지만 아무진 손으로 두루마기, 베갯모 등을 수놓아 판 돈을 국채보상운동에 냈다.

1908년 장선희가 안신소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틈틈이 베갯모와 침낭을 수놓아 팔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숭의여학교에 진학했다. 장선희는 손에서 수틀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선희의 오빠가 정신여학교로 옮길 것을 권했다. 정신여학교는 민족정신이 매우 강한 학교였기 때문이다. 장선희는 평소 오빠를 존경했다. 어려운 환경

에서도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오빠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선희는 1년 반 동안의 숭의여학교 생활을 정리하고 1912년 정신여학교에 편입했다. 그곳에서도 수놓는 일을 놓지 않았다.

1914년 장선희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들어가 수예를 전문적으로 배웠다. 동시에 정신여학교 자수 선생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미술, 편물(뜨개질) 등도 가르쳤다. 장선희는 민족정신이 강한 선생이었다. 그녀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민족정신이 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깎아 세운 절벽이 아무리 위태로워도 아름다운 꽃은 뿌리를 튼튼히 바위 속에 박고 피어납니다. 사나운 비바람처럼 일본 침략의 정치가 우리 민족의 생명을 억누르고 있어도 우리 민족정신의 뿌리가 실력을 토대로 깊이 박히는 날 우리 앞에는 서광이 비쳐 오고 우리 민족은 희망에 찬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장선희는 늘 독립을 바라며 학생들에게 국권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1919년 2월 어느 날 정신여학교 동창인 김마리아가 그녀를 찾아왔다. 김마리아는 국내의 독립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장선희는 김마리아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했다. 그리고 서울로 가서 3.1운동에 참여했다. 장선희는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면서도 독립운동가와 은밀하게 접촉했다. 3.1운동이 이어지는 동안 김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들에 의해 투옥됐다. 잡혀 가지 않은 독립투사들은 잡혀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었다. 장선희도 이 모임에 가담했다. ‘혈성 애국부인회’로 불린 이 단체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원하며 적극적인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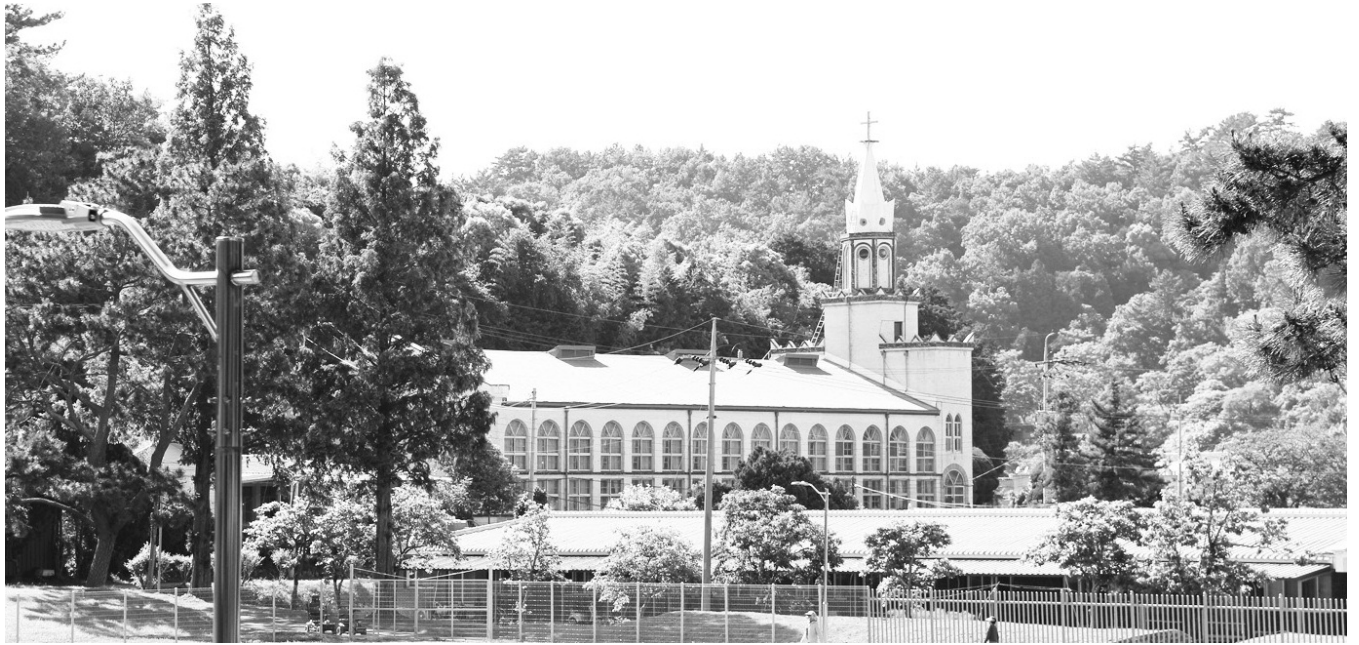
1919년 8월 3.1운동에 참여했던 김마리아가 출소했다. 김마리아 출옥 환영회로 꾸며진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조직 개편 모임에서 장선희가 재무부장이 된다. 전국에서 모인 돈을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동지의 밀고로 장선희와 동료들이 체포되고 감옥에서 4년을 보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장선희는 여성기술교육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1924년 장선희는 서울에 ‘조선여자기예원’을 설립하고 도화, 조화, 면사포 제조법, 서양 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교육을 했다. 모든 수업은 무료로 진행됐다. 장선희는 일본 경찰의 계속되는 감시 속에서도 자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정신을 상기시켰다. 그녀가 자수로 번 돈은 모두 독립자금에 필요한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거나 여성을 계몽하는데 사용했다. 해방 이후에는 여성기술교육과 여성공예미술 발전에 헌신했다. 그녀는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웃에게 나눠준 작은 예수였다.

특집 / 한국 선교, 그 흔적을 찾아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본지에서는 ‘한국 선교, 그 흔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여행도 하고, 순례도 할 수 있는 선교여행 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그 두 번째 코스는 ‘소록도’다.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 앞바다에 위치한 소록도는 1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센인들의 애환과 고통 그리고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여행지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소록도 중앙공원에서 바라본 중앙교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센인들의 애환과 고통, 신앙이 서린 섬 ‘소록도’

탁 트인 푸른 바다가 장관이다. 초록 나무와 푸른 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다. 소록도(小鹿島)의 첫인상이다. 소록도는 작은 사슴 모양을 띄고 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소록도에는 실제로 사슴이 200여 마리나 살고 있다. 동화 속이나 나올 법한 이 아름다운 섬이 한센인들의 아픔과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소록도는 면적 4.42km²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다. 그 작은 섬에서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센인들이 깊은 고독과 질병에 맞서 싸웠다. 그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앙이었다. 한센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이었다.

한센인들이 소록도에 모여 살게 된 이유

한센인들이 처음부터 소록도에 모여 산 것은 아니다. 1910년 일제의 탄압에 대한 조선인들의 원성이 높아질 무렵이었다. 당시 여수, 부산, 대구 등지에서 한센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넘쳐나는 한센병 환자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했다. 일본 총독부가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자혜의원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소록도는 기후가 온난하고, 남쪽에 구름이 있어 환자와 직원들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한센인들을 격리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다. 지금도 국립소록도병원 주차장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직원구역, 왼쪽은 한센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픔을 걷다 ... 소록도 순례길

국립소록도병원 주차장에서 국립소록도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꽤 길다. 주차장에서 국립소록도병원까지 해안을 따라 약 960m, 한센병박물관까지는 약 1km 떨어져 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 이 길을 ‘수탄장(愁嘆

場)’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근심과 탄식이 가득했던 장소’라는 의미다. 당시 한센인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족들과 면회를 수 있었었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바라봐야 했다.

소록도 순례길은 바로 이 수탄장을 걷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길을 걷고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는 있어도 만질 수 없고, 안부를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었던 한센인들의 눈물과 탄식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국립소록도병원을 지나 5분 정도 더 가면 ‘한센병박물관’이 나온다. 이곳은 꼭 빠뜨리지 말고 가봐야 할 장소다. 100여 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한센인들의 애환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센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다.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권유린이 곧 일상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단종 수술’이다. 당시에는 한센병을 유전병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의 임신과 출산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센인들을 버리지 않고 등불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소록도 자혜의원 2대 원장 ‘하나이 젠키치’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소록도 자혜의원 원장을 역임한 5명의 일본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센인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았다. 만 8년 동안 소록도에서 생활하면서 한센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생활 개선에 적극 나섰다.

“하나이 젠키치가 2대 원장으로 부임하여 확고한 뜻을 정하고 원무를 혁신했으니 모든 언행은 자애에 가득 차 있었다.”

한센인들이 하나이 젠키치 원장을 기리기 위해 세운 창덕비에 적힌 글귀다. 창덕비는 소록도 자혜의원 오른쪽에 세워져 있다. 자혜의원은 한센병에서 완치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다. 마을 입구에서 자혜의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다. 지금도 자혜의원은 벽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작은 창문이 달려 있다. 한센병에 전염될 것을 염려해서 그 창문으로만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한다.

하나이 젠키치 원장이 1922년 10월 광주에서 활동하는 성결교단 전도목사 ‘다나카 신사부로’를 소록도에 초청해서 이틀 동안 집회를

열었는데 바로 이 집회가 소록도 부흥의 일등 공신이다. 집회가 열리고 나서 소록도는 눈부신 부흥을 경험했다. 1년 만에 교인 120명이나 생겼다. 당시 소록도에 한센인이 2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 120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엄청난 숫자다. 1923년 11월에는 소록도 주민 남자 40명, 여자 4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남성교회’와 ‘복성교회’다. 성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중앙교회, 신성교회, 장안교회, 서성교회, 동성교회도 세워졌다. 지금도 소록도 주민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 간절한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록도에 교회가 7개 있는데 완치된 한센병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다. 그 마을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는 없다. 마을 입구에 있는 중앙교회만 중앙공원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한센인은 평생 세 번 죽는다

소록도 중앙공원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보인다. 그곳에는 한센인들을 감금했던 감시실과 그들의 시체를 해부했던 검시실이 있다.

“한센인은 세 번 죽는다. 첫 번째는 한센병 발병, 두 번째는 죽은 후 시신 해부, 세 번째는 장례 후 화장이다.”

검시실 안내판에 적힌 글귀가 당시 한센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34년 일제의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면서 소록도에도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교회 직원과 성도들은 30일 동안 구금시켰다. 1941년에는 강제 노동 원생동원령이 내려졌다. 벽돌과 기와 굽기, 가마니 짜기, 바닷가 축대 쌓기, 선창 축조공사, 도로공사, 중앙공원 조성공사 등의 강제노동이 강행되었다. 한센인들은 일본 감독자들의 몽둥이와 채찍질에 피멍이 들기 일쑤였다. 한센인들은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굵아 썩어버리는데도 모진 매질을 가했다. 일제는 주일에 더 심한 노동을 시켰다. 예배당에

는 우상을 세우고, 하루 노동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태형을 가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감시실로 끌려가 무차별적인 구타가 이어졌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감시실과 검시실에 가면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감시실에는 작은 창문 외에 빛이 들어오는 곳이 없다. 한센인들이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감시실에 걸려 있는 김정균 성도의 시 ‘감금실’에는 신앙으로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고자 했던 한센인들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찌서 밭도 안주느냐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가 없으니 무릎을 꿇고 주께 호소하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내가 불신자였다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바에 는 분노를 기어코 폭발시킬 것이오나 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을 당할 때 하도 괴로워서 이불겹질을 뜯어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내 주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감시실과 검시실에서 더 올라가다보면 중앙공원이 나온다. 나무와 풀과 꽃이 잘 정돈된 정원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이 아름다운 공원에도 한센인들의 상처와 피눈물이 서려 있다. 중앙공원은 70여 년 전 한센인들이 직접 돌을 옮기고, 돌을 깎아 만들었다.

소록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례길이다. 한센인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신앙이 고스란히 묻어 있기 때문이다. 올 여름, 그곳에 가서 한센인들과 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센병박물관
관람시간: 9:30~16: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문의: 061-840-0692~3

추천코스: 수탄장 길-한센병박물관-갱생원
검시실, 감시실-중앙공원

재미있는 조선 선교이야기 _ 스크랜턴 선교사와 시병원

‘서양오랑캐(洋夷)’라는 편견을 뛰어 넘다!



임찬웅 집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문화재해설가)

중국 청나라와의 일방적 외교관계에 의존했던 조선은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를 거치면서 서양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 1868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고종의 할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남연군의 관을 인질로 삼고 흥선대원군과 협상하면 조선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병인양요는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인 신부를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서양인들은 오랑캐가 틀림없다는 신념적 믿음을 갖게 된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말은 ‘굴총(掘塚)할 놈’이었다. ‘무덤 파헤칠 놈’이라는 뜻이다. 남의 무덤을 이유 없이 파헤치는 행위는 고금을 막론하고 금기시되어 왔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할아버지의 무덤이라니. 조선 전체가 들쭉이질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당시 실세였던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강력한 힘을 보태주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저물 것 같지 않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조선은 강화도조약(1876년)을 시작으로 서양과 만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감았던 눈을 뜨기 시작했고,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조선은 일본(1876년), 미국(1882년), 영국(1883년), 독일(1883년), 러시아(1884년) 등 11개국과 관계를 맺었고, 각국의 공사관이 한양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본은 남산 기슭, 미국은 한양의 서쪽 정동에 자리 잡았다.

서양 국가들은 정동을 터전으로 삼았다. 정동은 서양인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는 장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정동은 원래 ‘정릉동’이라 했는데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정릉)을 이곳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었다. 태종에 의해 능이 옮겨지고, 원래 정릉동이었던 이름이 줄어 정동이 되었다.

미지의 나라였던 조선에 각국 영사관이 들어서면서 외교적 안정을 되찾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1885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동 중심에는 정동제일교회가 있다. 정동의 상징물이다. 교회 맞은편에 가수 이문세의 ‘광화문연가’를 작곡했던 이영훈의 작곡비가 있다.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작은 교회당’이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널리 베풀어 구하는 병원 ‘시병원(施病院)’

정동제일교회가 자리 잡기 전 이곳에는 ‘시병원’이 있었다. 의료선교사로 입국했던 윌리엄 스크랜턴(1856~1922년)이 설립한 병원이었다. 그는 처음 조선에 와서 제중원에서 진료를 보았다. 제중원은 임오군란(1882년) 이후 세워졌는데 먼저 들어와 있었던 의료선교사 알렌



① 스크랜턴이 설립한 정동 시병원.
② 상동교회 초기 모습.
③ 상동교회의 현재 모습.
④ 조선에서 의료선교를 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중원은 정부고관이나 양반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은 조선 민중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곳에 병원을 건립했다. 이때가 1886년 6월 15일이었다.

병원은 이름도 없이 시작했다. 다만 병원 입구에 한글로 쓴 방이 붙어있을 뿐이다.

“남녀노소 아픈 사람은 누구든 오시오. 아무 날이나 아침 열 시부터 반병 하나씩 갖고 미국 의사를 보러 오시오.”

공짜로 주는 약을 담아갈 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오랑캐’라는 선입견이 강했던 당시 분위기에서는 서양인이 진료하는 병원에 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웬만큼 급하지 않고서는 제 발로 찾아가지 않았다. 가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 갈 수 없었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밖으로 나가 환자를 데려와 진료하는 수밖에 없었다. 시병원의 첫 환자는 아픈 사람이 스스로 의사를 찾아오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찾아서 데려와 진료한 사람이었다. 눈치보며 주저하고 있는 환자들을 의사가 직접 찾아 나선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당시 한양 도성 주변에는 집을 지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빈 땅에 움막을 치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동은 한양 도성의 서쪽 성벽과 가까웠다. 스크랜턴 대부인(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이 서대문 성벽 아래 버려진 여인을 발견하고 데려왔다. 그 여인이 당시 유행병이었던 콜레라에 걸려자 가족들이 버린 것이었다. 그녀와 함께 버려진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죽어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성벽을 따라 걷다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여인과 어린 딸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다했을 것이라곤 짚으로 만든 거죽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인과 딸을 이곳에 두고 시골 자기 집으로 간지 3주가 지났답니다. 여인은 어디 가서 남편을 찾아

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여인의 몸을 살펴보다가 실패했는데 여인이 나를 보자 무서워하여 정신상태가 극도로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기온이 내려가기에 짐꾼들을 불러 성벽으로 가서 그 여인을 업어다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짐꾼들도 처음 보는 여인이자면서 내가 주는 수고비를 마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엾은 사람을 도와주려는 내게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선교보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여인을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서 한 달 만에 살려냈다. 회복한 이 여인은 ‘패티’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선교사 집안일을 도왔다. 그녀의 딸 ‘별단이’는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운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이후에는 일본 유학까지 다녀와서 간호사가 되어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운 여성전문병원 ‘보구여관’에서 일했다.

이 여인이 치료받았던 1886년에는 돌림병(콜레라)으로 한양이 발각 뒤집혔었다. 병에 걸리면 환자를 격리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주로 광희문(사소문 중 하나) 밖에 버려졌는데 지금의 신당동 일대다. 당시 광희문은 시신이 많이 나간다고 하여 ‘시구문’으로 불렸을 정도다. 시구문은 온갖 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지켜봤으므로 면역력이 대단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시구문 돌가무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 굶어 먹기도 했다. 진짜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허망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온갖 우상에 의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그해 여름 두 달 동안 5백 명을 치료했다. 이일이 계기가 되어 나라에서 ‘시병원(施病院)’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널리 베풀어 구하는 병원’이라는 뜻이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한국식 이름은 ‘시란문’이기도 했다. 시병원 옆에는 여성전문병원인 보구여관과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재학당, 스크랜턴 대부인이 주도한

이화학당이 자리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인재를 양성했다.

조선 민중들 속으로

나라로부터 병원 이름을 받은 것은 조선 사람들에게 ‘임금이 인정한 병원’이라는 믿음을 주어 거리감을 줄여주었다. 그러나 정동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 즉 ‘서양인들 구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발걸음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안정적인 정동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병원이 성공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봄비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남대문 상동이 그 위치며... 그곳은 민중이 있는 곳인 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외국인 주거지역입니다”(1893년,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선교보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민중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 안정적인 곳은 안락함을 준다. 안락함은 게으름을 유발하고 본분을 망각하게 한다.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 민중들 속으로 들어갔다. 시병원이 옮겨간 후 정동에는 덕수궁이 들어서게 되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고종은 정동의 러시아공사관에서 1년을 보냈고, 정동 일대에 궁궐을 하나 짓게 되었는데 바로 덕수궁(원명: 경운궁)이다. 각국의 공사관과 덕수궁은 이 지역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었다. 조선 민중들에게 더 먼 곳이 된 것이다.

주님의 이끄심은 오묘해서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주님의 이끄심이 미리 있었고, 순종했더니 더 큰 역사를 맡기셨다. 상동으로 옮겨간 병원은 교회(상동병원교회)와 함께 설립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인재를 배출하며 더 큰 바다를 향해하였다. 지금의 상동교회가 우뚝 솟아 그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김경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최근 동성애 이슈와 관련하여 포스트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감리교 여성신학자요, 드루대학교(Drew University) 교수 캐서린 켈러(Catherine Keller)가 2017년 10월 한국을 방문해서 트랜스페미니즘(transfeminism)에 관하여 강연해, 연세대, 장신대 등에서 강연하고, 심층 이해 특별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럼으로써 트랜스페미니즘 논의가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트랜스페미니즘은 과정신학적 부정신학에 근거하고 있는데 상징적, 미적 언어를 통한 함축적이고 비직접적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켈러는 부정신학과 과정신학을 결합시키는 시작신학(theopoetics)에 사상을 담으면서 이를 트랜스페미니즘으로 발전시킨다. 켈러는 트랜스페미니즘을 오늘날의 쿼어신학의 동성에 정당화를 위한 신학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과정신학적 부정신학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깊음, 테흠, 혼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켈러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말씀에 의한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n ex nihilo)를 거부하고 깊음으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profundis, creation out of the deep)를 말한다. 그녀는 과정신학의 관점에서 단 한 번의 유일회적인 완성된 창조가 아니라 지속되는 창조(creatio continua)를 주장한다. 켈러는 말씀으로 일회적으로 완결로 끝나는 창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시작하며 여러 존재들의 얽힘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창조를 말한다.

켈러는 전통신학이 말하는 말씀에 의한 창조(creation by the Word)가 아니라, 깊음, 혼돈으로부터 창조에 주목한다. 깊음(the deep)은 하나님 자신의 깊음이다. 하나님의 깊음은 하나님 자신을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탄생시킨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도 모든 존재 안에 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켈러의 과정신학적 해석에는 하나님과 만물이 불가분적인 존재로 있는 법제신론의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켈러가 주장하는 깊음으로부터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이 증언하는 말씀에 의한 창조와 다르다. 말씀에 의한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로써 여러 존재들의 얽힘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캐서린 켈러는 트랜스페미니즘을 쿼어 신학의 동성에 정당화를 위한 신학적 근거로 제시한다.

창조가 아니다.

성경적 창조는 완성된 창조 이전에 근거한 지속적 창조

이러한 지속적 창조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생성만 있다. 켈러가 말하는 무한한 시작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인정하며 이것이 무한한 과정의 하나의 계기일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에도 실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통 개혁신학은 말씀에 의한 창조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반드시 서며 이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사 14:24).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 14:26-27).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누구도 능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테흠(창조의 근원)

켈러에 의하면 창조가 나오는 깊음은 형태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창조의 근원인 테흠(tehōm)이다. 테흠은 되어감의 근원이다. 테흠은 단순히 억압하고 격퇴해야 하는 혼돈이나 흑암이 아니다. 테흠으로부터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모든 되어감 속에 계시며, 시작과 끝이 없으며,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 테흠은 창조의 근원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끊임없는 시작으로서 되어감의 원천이다. 이 되어감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실패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도 배움으로 다시 새로움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거대한 과정 속에서 선과 악, 성공과 실패, 빛과 어둠, 구원과 타락은 분리되지 않고, 관계성 속에서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양하게 열리고 하나님도 그 과정에 기여한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이루가시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현실의 사건 속에서 무엇인가를 촉발해내고 시작하게 하는 존재이다.

테흠은 단순한 흑암이나 혼돈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감싸 안는 근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창조의 어머니이다. 켈러는 테흠을 ‘불확정성, 삶의 과정의 깊이’라 부른다. 테흠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며,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열린 공간이다. 이는 니콜라스 쿠자(Nicholas of Cusa)의 부정신학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무지의 구름(cloud of unknow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을 초월한 삼위일체적인 사명의 존재

켈러의 과정신학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만물에 의존하면서 만물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과정적 존재이다. 과정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신 자가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서 피조물의 영향을 받고 피조물과 함께 되어감의 존재다.

켈러는 전통적 창조신앙의 하나님은 유일신적 가부장적 하나님으로서 명령 하나로 절대적인 기준을 피조물에 제시하고 단 한 번에 창조를 완성하고 존재 피라미드 최상위에 권위적으로 제국주의적 신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궁을 가진 테흠으로서

여성의 신이거나 남성의 신이 아니라 성을 초월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창조의 하나님은 여성의 자궁 같은 테흠이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이시다. 그는 로고스로서 없는 것으로부터 만물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말씀이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성신이나 남성신으로 표시한 곳이 없으며, 단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시하고 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아버지 품(the bosom of the Father)’이란 알이나 자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는 신성의 원천을 말한다. 이 영원하신 신성의 원천에서 독생하신 아들 성자가 나왔다. 이것을 정통 개혁신학은 성부로부터 성자의 영원한 출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겐세마네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는 다음 같이 기도드리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하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5).

이 말씀은 아들이 창세 전 영원 전부터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신의 존재나 매개가 없고,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성자의 출생이 있었다. 이것은 영원한 출생(eternal birth)이요, 이러한 영원한 아들 출생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자궁과 젖통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랑의 띠다.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삼위일체적인 교제와 일치와 있으며 가부장적 권위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흠에서 시작되는 만물의 서로 얽힘

켈러의 과정신학에 의하면 모든 존재, 세상과 만물은 시작도 끝도 없는 다양성과 개방성 속에서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세상과 만물의 역동성을 가능케 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그 역동성과 변화, 과정 안에 함께 있다. 세상과 만물, 즉 모든 되어 가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 가며, 하나님도 그 속에서 되어 간다. 하나님은 이러한 되어감 속에서 피조물과 함께 있다. 켈러는 이러한 과정의 추동력이 되는 하나님을 테흠, 혼돈, 깊음이라고 상징했다.

여기서 하나님은 테흠, 혼돈, 깊음과 구분되지 않는다. 과정신학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이

기보다는 ‘인간을 끊임없이 추동시키고, 돌보는 열려 있는 신비’로 파악된다. 이러한 테흠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불확실성,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니는 존재이다.

켈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훼의 천사들’과 동격으로 묘사되는 것에 근거하여 엘로힘이 ‘모든 존재의 힘을 가능하게 하는 힘’, ‘땅, 물, 공기 그리고 불을 생겨나게 하는 최초’의 힘이자 물질’로 표현된다고 해석한다. 그리하여 켈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기에 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기도 하다는 과정적 제안을 한다. 바다, 숲, 소음, 사회, 삶, 사건들과 나날들이 단순히 창조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창조하기도 하지만 창조와 생성 속에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테흠의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창조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만물이나 그 가운데 어떠한 존재와 동일시되는 분이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느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한다.

“누가 여호와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묘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사 40:13-14).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은 어느 만물에 의존하거나 인간이나 천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선지자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을 말하고 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불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때오르는 먼지 같으니라”(사 40:15).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사 40:17).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불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섬들은 때오르는 먼지’,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간주하신다는 이사야의 표현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성과 초월성을 명료히 찾아 볼 수 있다. 정통 개혁신학은 이러한 만물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 위에 뛰어나 전혀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주관적인 하나님과 초월성을 믿는다.

테흠으로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다

캐서린 켈러는 테흠을 알고 알고 자궁과도 같은 신비로 본다. 테흠은 신비이기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 생겨난 존재, 생겨날 존재

들을 모두 품고 있다. 테흠은 피조물과 같지도 않고, 그러하다고 무관하지도 않다. 테흠은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 변화,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기능성이면서 그 변화와 다양성 속에 함께 있다. 이 테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테흠으로서의 하나님은 깊은 혼돈으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시작도 끝도 없는 깊은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피조물과 함께 존재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진행 중에 있고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예기할 수 없다. 테흠으로서의 하나님은 이 거대한 심연의 바다에 피조물과 함께 공존하며, 기쁨과 슬픔, 선과 악의 조화,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적 존재이다. 이러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주관적이고 초월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다고 증언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못하

는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냈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사 41:2-4).

하나님은 만대를 정하신 분으로서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이러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르고 과정 속에 있는 테흠으로서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영이신 하나님은 신체요 물질인 세상, 만물과 연결

켈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며 과정신학적 법제신론을 천명한다. 그리고 그녀는 존재 하나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천명한다. 과정신학적 법제신론은 모든 악과 고통을 하나님에게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한

추였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과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저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사 10:13-14).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앗수르 왕의 교만과 자만이란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하며 막대가 드는 자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켜쥐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같음이라”(사 10:15).

성경은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행사를 인정하는 신단독설을 천명하며 하나님이 인간이나 세상과정에 의존하는 신인행동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물질적이지 않다

정통 개혁신학적 성찰에 의하면 이러한 켈러의 법제신론은 하나님은 영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신체인 세상과 불가분적인 관계 속에 존재함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세상적 존재로 평가절하하고, 그의 신체인 세상에 의존시키고 있다. 켈러는 하나님의 영은 물질적이며 구체성과 신체성을 지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되어가는 과정 중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반응하고 이끌고 초대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통 개혁신학의 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물질이나 신체성을 지닌 분이 아니다. 그는 영이시다. 예수님은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히 1:14a)’인 것처럼 하나님은 신체를 지니지 않으신 영이시며 그는 영원하시다. 사도 바울은 천명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

시편 저자가 노래하듯이 세상은 물질로써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신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히 1:10-12).

(계속)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르고 과정 속에 있는 테흠으로서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었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사 40:21).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종말을 아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땅 위 궁중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 같이 파셨으며 거주할 천막 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삼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임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 같도다”(사 40:21-24).

인간들은 하나님과 대등한 동역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는 존재로서 ‘매뚜기’, ‘천막’, ‘초개’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일깨워 열국을 그에게 맡기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하며 만대를 불러내신 분이시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같이 티끌 같게, 그의 황에 불려 가는 초개같이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님은 이 모든 연결된 사건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제신론에서 모든 존재는 놀라운 만큼 상호의존적이며 관계적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서로의 힘 안에 존재한다. 그리하여 과정신학은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 분리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 둘이 늘 상호 연관되어 있고, 얽혀 있음을 강조한다. 법제신론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신체요 물질인 세상,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 과정신학에서 고통과 악이란 모든 존재들 사이에 흐르는 힘(에너지)의 오용과 독점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성경적 하나님은 만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과정신학은 ‘신인협동설’을 말하나 이는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관론에 배치된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앗수르 왕이 자기 왕국 건설이 자기의 힘, 지혜, 총명, 용감에 의한 것이라는 교만과 자만을 비판한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건어차렸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므로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



안산M센터와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 형제들이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캄보디아예배 영등포 광야교회 아웃리치

“섬김만 받다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 17일 안산M센터와 김포M센터 캄보디아예배에서 영등포 광야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이날 아웃리치에서 캄보디아예배 형제들은 식사봉사팀, 청소팀, 전도팀으로 나눠 봉사했다.

식사봉사팀은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줬다. 그 모습을 지켜 본 노숙인 김철용 씨(65세)는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돈 벌러 왔는데 우리를 위해 봉사해주니 마음이 울컥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거리 청소도 했다. 영등포 광야교회 인근에 있는 쪽방촌 골목을 다니면서 휴지를 주웠다. 거리 청소에 적극 가담한 스마일 형제(안산M센터

캄보디아예배)는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까 마음이 상쾌하다”고 말했다. 전도팀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띠를 두르고 광야교회 성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다.

임명회 목사(광야교회 담임)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축복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청년과 시니어의 융합 기대”

2018 어!벤처스 사전설명회 개최

지난 19일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회 ‘2018 어!벤처스’ 사전설명회가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됐다. 청년 80명과 멘토 12명이 참석했다. 사전설명회에서는 2018 어!벤처스 지원대상과 혜택, 선발기준 및 일정 등을 소개하고, 최이현 대표(모어덴)와 양재식 대표(더 플랜잇)로부터 어!벤처스 참가소감을 들었다. 멘토와의 만남도 이어졌다.

최이현 대표는 “어!벤처스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고, 양재식 대표는 “어!벤처스만의 특징은 사업보다

사람에 대한 멘토를 해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진호 장로는 “이번 어!벤처스는 청년과 시니어의 융합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는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의: venture4world@gmail.com

02-499-4111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산마루교회 ‘산청설악여행’ 참가자 모집

6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산마루교회 청년교회에서 ‘산청설악여행’에 함께 참여할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모집한다. 산청설악여행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와 함께하는 영성산행 프로그램이다.

산청설악여행은 두 차례 진행된다. 1차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 2차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설악산에서 진행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비는 13만 원이다. 회비 중에서 3만원은 이웃돕기기금으로 사용된다. 참가신청은 구글서베이(<https://goo.gl/wonJv>)에서 하면 된다. 6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다음 달 매주 토요일(7일, 14일, 21일, 28일) 오후 5시에는 산마루교회에서 준비모임을 한다. 준비모임은 중보기도회, 멘토 특강, 조편성, 일정 안내, 준비안내, 애찬 및 친교 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멘토 특강에서는 조성남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종수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박은선 교수(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신영목 원장(삼성병원) 등의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2-3273-0891

일.하.세. 사역팀 ‘GUM 예배’ 문화강연

‘문학, 치유와 공감’ 주제로 최윤 교수 강의

일.하.세. 사역팀이 지난 1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01호에서 GUM 예배를 드렸다. 이날 GUM 예배에서는 ‘문학, 공감과 치유’를 주제로 프랑스어예배 최윤 집사(소설가, 불어불문학 교수)의 문화강연

이 진행됐다.

이날 최윤 집사는 프랑스어 모리악(프랑스)의 〈사랑의 사막〉, 베른하르트 솔링크(독일)의 〈책 읽어주는 남자〉, 오에 겐자부로(일본)의 〈인생의 친척〉을 비교하면서 공감과

삶과 신앙에 대해 고찰했다. 최 집사는 “언어는 다차원적이고, 문장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관이 표현되어 있다”면서 “영적인 필터를 가지고 좋은 문학을 걸러 읽지 않으면 세상 문학에 동화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 624명 수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624명이 바이블 아카데미(Bible Academy)를 수료했다. 과목별 수료 인원은 CDC(Cristian Dicipleship Course) 104명, 예통비전(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는 90일 성경 통독) 520명이다. 박소명 자매(SNS공동체)는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예통비전 과정을 들으

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학청년부 일대일 양육자반은 6월 27일에 종강할 예정이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대학청년들에게 성숙과 헌신, 신앙 성장을 돕는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이다.

6월 세레자

■서빙고	염하준 170202	임 레 610110	원예은 170324	〈대학청년부〉
권오덕 841024	염상준 손진숙		원대한 강은주	■길
김소라 820522	이로이 160614	입교	이노엘 160817	김시나 901117
김수정 940803	이광연 손지나	김영훈 860808	이승재 김초롱	민우근 861122
박건영 710224	이민준 170304	양요한 020923	이서용 170703	
신동윤 780908	이현영 오은미	하동주 990417	이 민 김해숙	■여호수아
양수연 910127	이성준 180130		임하원 160826	최하영 930326
양인숙 700210	이광택 홍혜원	유아	임 혁 현진아	
장미정 680813	장하연 170103	김시호 160606	정재민 160728	입교
최근수 620216	장원석 이수정	김장환 김상리	정원희 이혜인	김동원 890825
	진규희 160618	김유한 170223	조수아 161115	
유아	진재덕 박수현	김종민 신혜원	조민열 이현희	■요셉
김담희 161013	최라온 170711	김주현 170217	조하린 160930	최명희 840102
김동호 박진선	최명호 한승현	김태환 박유리	조재성 강다남	
김도영 161117	한예리 160627	백승원 160329	최석원 160702	■W
김상현 이은수	한현진 이지은	백웅선 채수련	최경우 조진희	이지현 910102
김유준 160805		신가는 170624	최준영 170902	조혜숙 820504
김시형 김지연	■양재	신창우 허선영	최경우 조진희	
박소은 170307	손병희 740424	원예강 170325	황지성 160802	
박민지 김두리	이화영 821002	원대한 강은주	황준욱 김세현	

강동, 여름아웃리치 기금 마련 바자회

강동 온누리교회가 지난 주일(17일)부터 여름 아웃리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늘(24일) 차세대, 7월 1일 믿음공동체, 7월 8일 말씀공동체가 강동 온누리교회 사이닝글로리에서 바자회를 연다.

사이닝글로리 참가자 모집

영성회복프로그램 ‘사이닝글로리’ 7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주비전대학교 선교관에서 진행된다. 청년 이상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20만원이다.

문의: 063-220-3612

두란노 창조과학탐사 참가자 모집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이재만 선교사와 함께하는 ‘제15차 두란노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미서부 3대 캐니언, 요세미티 국립공원, 규화목 국립공원, 페인트드 사막 등지를 탐사할 예정이다. 목회자, 청소년 및 부모 등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

지 참가할 수 있다. 8월 23일까지 선착순 45명 마감한다. 회비는 359만 원이다. 두란노 창조과학탐사는 성경에 나타난 창조시대와 빙하 시대의 증거를 찾아 떠나는 과정이다. 미주창조과학선교회 회장 이재만 선교사가 인도한다.

문의: 02-2078-3456

■ 2018 행복드림 기차여행 간증



/ 김현님 어르신

이제 나도 두 딸과 함께

나는 7남매 중에 막내딸이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과 언니들의 빠른 출가로 집안의 수족처럼 살았다. 어려서부터 힘들고 바쁜 삶에 지친 친정엄마를 보며 자란 나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런 나의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이 시아버지 눈에 들어 남편을 만났다.

시댁은 점쟁이를 집안까지 불러들였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점쟁이에게 의지했다. 어머니는 세 며느리까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며 나를 절에 데려가곤 하셨다. 그런 생활에 불만이 많았지만 불교에서 평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총명한 두 딸을 낳았다. 당시 우리가 살던 집은 절 밑에 붙어있었는데 목탁치는 소리와 염불 외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두 딸은 그 환경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다. 절 아래 붙어살던 집안에서 성경 읽는 소리와 기도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철저한 불교 집안이였기 때문에 두 딸의 전도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가족 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민할수록 어릴 적 몇 번 갔었던 교회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양 떼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인자하고 평안한 모습도 생

각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다.

나는 두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었고, 두 딸에게 성경을 배웠다.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다.

큰딸의 초대로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행복드림콘서트에 가게 됐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봉사하는 모습이 큰 감동이었다. 그 감동은 강원도 영월까지 가는 기차여행 행복드림까지 이어졌다.

나는 그 기차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곁에서 나를 지켜보던 딸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 기차에서 받은 축복은 정말 가슴 벅찼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다. 지금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 집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손잡고 교회에 오는 것이다. 이제는 나도 두 딸과 함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남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 누리사랑부를 섬기며



/ 박범식 팀장(누리사랑부)

감사를 배우는 학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사랑부에 모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따스한 손길로 누리사랑부 지체들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누리사랑부는 성인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25년 전 하용조 목사님의 제안으로 10명 남짓 되는 성도들이 모여 시작했다. 개별 전도와 맞춤 전도 등을 통해 지금은 재적인원 100여 명, 평균 5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누리사랑부를 섬기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첫째, 누리사랑부 지체들보다 한두 시간 먼저 움직여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울 수 있다. 둘째, 조별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 셋째, 매주 함께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는 식탁 교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다.

누리사랑부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는 정성과 사랑이 있다. 준비과정이 약간 어수선하

고, 예배 진행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누리사랑부는 감사를 배우는 학교이다. 많은 지체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누리사랑부 예배를 통해서 해소하고 위로받는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친다.

누리사랑부가 과거에 비해 많이 노력화되었다. 근래에는 새로 들어온 장애인들이 참 귀하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지체장애인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누리사랑부에는 약 50명 정도의 장애인 성도들만 출석하고 있다.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기를 소망한다.

누리사랑부에는 섬김의 손길도 많이 부족하다. 40~50대에 섬김을 시작한 성도들이 이제 60~70대에 이르렀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누리사랑부의 '초대장'을 보낸다. 예배 준비, 식사 섬김, 마이크와 음향설치, 찬양과 율동을 함께 인도해 줄 손길이 필요하다. 전자 드럼이 있는데 연주할 사람이 없어 3년째 캐비닛에 있다. 섬김의 자리를 찾고 있는 성도들을 누리사랑부에 초대한다.

문의: 010-5225-1519

■ 갈렙선교사 간증



/ 채현석 선교사(2000선교본부)

큰 축복이었고 기회였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다 중·고교 시절 방향하면서 멀어졌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교회생활을 다시 시작하였다. 군 생활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거듭남을 체험하였다.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배우게 되었다. 해외 선교, 타문화권 선교로의 부르심에 응하겠다는 헌신서약을 여러 차례 했다. 여러 사정으로 해외 선교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에 삶을 드리고 있었다. 2005년부터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다시 해외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2013년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외 선교를 생각했다. 전문인선교사 훈련과 TP(Turning Point) 훈련을 받고 2015년 갈렙선교사로 A국에 파송 받았다.

첫해에는 인구 100만의 도시인 B시에 거주했다. 언어를 배우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느라 초진장 상태에서 지낸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아주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곳 사람들이 참 친절해서 많은 도움과 평안을 경험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사귄 수 있었다. 학원 선생님, 인근 나라에서 온 동료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나눴다. 또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된 한 부부가 우리를 가까이 하여 여러 차례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등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이들 부부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A국의 가장 큰 도시에서 살게 되었다. 서울보다 크고 복잡한 대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여기저기 관광지와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기도 했다. 또 이웃 사람들과 사귀면서 언어도 늘고 문화도 배울 수 있었다. 동네 문화센터를 자주 방문해서 현지인들과 사귀며 문화를 익혔다. 선임 선교사가 인도하는 교회가 있어 예배와 섬김 등 다양한



채현석 선교사가 A국에서 교제한 현지인들.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도시에서 한복 쇼가 열렸을 때 만난 현지인 자매가 세례를 받고 교회생활을 잘 하고 있다. 복음 전파가 제한된 분위기의 나라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다.

2017년에는 다시 인구 50만의 작은 도시로 옮기게 되었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의 집에서 살았다. 응접실 안에서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즐거움을 누렸다. 그곳에서는 주변 나라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주해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했다. 평생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

른다.

올해 3월 현지 사정으로 3년 동안의 선교지 삶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큰 축복이었고 기회였다. 무엇보다 젊어서 해외 선교에 헌신했던 마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많은 나이에도 선교지에 나갈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 형제자매들과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달았다.

지금은 다른 선교 관련 사역을 섬기고 있다.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언어도 계속 복습하고, 선교지에서 사귀고 섬겼던 이방인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내서 해외 선교에 헌신하기를 적극 격려하고 도전한다.

장로칼럼

일터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박공 장로
(신원산공동체)

그동안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발전시키고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통로를 열어 주셨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개인 간의 신앙적인 교우뿐 아니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육자와 동반자 수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대일 양육자에 비해 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일터 일대일 양육자가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난 5월 27일 주일설교 ‘일터와 하나님 나라’를 듣고 일터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이 필요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됐다. 물론 목사님께서 일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은 일터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순히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육자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배울 수 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 이는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영적으로 명확하게 이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은 거저 받은 은혜이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전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동참하게 됐다.

셋째,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즉,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이다.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구원의 감격은 함께 느낄 때 더 커지는 법이다.

넷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은 교역자나 사역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준비된다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이것은 삶이 예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의 확신이다. 크리스천들이 뜨거운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느낀 감정과 생각들로 인해서 믿음이 희미해지곤 한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앞으로도 일대일 제자양육이 견고하게 뿌리내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교회의 역할

나라의 안정과 비폭력 유지



베르너 크레첼 목사
(전 PanKow교회 담임)

1989년 5월 베링겐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은 탱크로 제압되었다. 그 후 동독의 모든 야당운동들도 중국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1989년 10월초 국가의 고위간부인 한 성도가 나에게 잇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사회주의를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든 ‘중국식 해결책’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동독의 모든 교회 및 비기독교적 야당운동에 대한 경고였다. 동독의 큰 도시 라이프치히의 월요일 시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든 시위행진은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기도회로 시작됐다. 사람들은 ‘폭력은 없다’는 평화 혁명의 핵심 구호가 쓰여 있는 피켓을 들었다. 더 이상 독일은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독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피켓과 포스터도 볼 수 있었다. 동독 정부는 점점 확대되는 월요모임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에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다. 모든 곳에서의 비폭력 구호는 결정적이었다. 교회 포스터에는 구약의 선지자 미가서에서 인용한 ‘칼을 보습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대장장이가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1989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잊지 못할 밤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베를린 중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와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

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 기자가 다가와 공산당 지도자가 기자회견에서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 사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 나라의 안정과 비폭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독재정권이 중단되면 세 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 지도자들이 분노에 찬 국민들의 손에 넘겨질 수 있다. 교회의 임무는 이러한 복수를 막는 것이다. 에리히 호네커는 베를린 장벽과 국경 건설을 책임진 공산주의자였다. 그의 아내인 마고트 호네커는 교육부장관으로 무신론적 교육에 책임이 있었다. 호네커 부부는 문이 터버렸기 때문에 집에서 살 수 없었다. 호네커 부부는 두 달 동안 동베를린 근처 목사관에 지내면서 보호를 받았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을 보호함으로써 두 번째 위험인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회복시키려는 위험 또한 제거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위험은 정치적 공백이 불러오는 혼란이다. 약탈, 집단 간의 경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혼란이 찾아 올 수 있다. 교회는 공산주의자, 정당, 정치 그룹을 원탁으로 초대해서 중재했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복음주의, 가톨릭, 감리교 등 목회자들이 주관했다.

1989년 12월부터 1990년 5월까지 매주 10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도시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했다. 공산당은 민주사회주의당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당시 당대표 아돌프 박사가 나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편안한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 관용, 상호 인정 및 경청에 관한 희망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사칼럼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지난 4월 27일 분단 이후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술한 화제를 뿌렸다. 이 역사적인 생중계를 지켜보던 각국의 기자들은 한국의 실상인 못지않은 감동과 환호를 보였다. 개

그프로그래프 코너에서까지 두 정상의 모습을 패러디할 정도로 뜻밖의 연출은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돌아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6.25 남침 정권에 검증 없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쨌든 극으로 치닫는 북미관계에서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한숨 돌린 건 다행스런 일이다. 휴전협정이 맺어졌던 해를 의미하는 1953년생 소나무를 식수하고, 평양에서 공수한 평양냉면이 등장했다. 그날 이후 남한의 평양냉면집들이 호황을 누리고, 경기

도와 강원도의 북한 접경지역 땅값이 올라 매물을 찾기 힘들다고 한다.

미디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표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석하느라 한동안 열을 올리기도 했다. 내게는 유독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고향의 봄’을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른 것이다. 이내 취재진의 카메라를 의식하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온 지구촌을 긴장시켜온 행적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고향의 봄’은 이원수 작사, 홍난파 작곡으로 1927년에 발표된 한국의 대표적인 동요이자 가곡이며 민요가 되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은 생명의 시작과 성장의 모토로써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어머니라는 눈물 나는 존재 앞에서는 누구나 숙연해진다. 민요는 민족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은 국내외에서 한민족을 하나

로 묶고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대표 민요이자 문화의 밭줄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연결 끈은 20세기 초 이주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다. 북미와 남미로 이주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아리랑은 활발하게 전승되어 왔다.

세계의 민요를 살펴보자. 미국의 민요인 ‘오수재너’는 1849년경 금광이 발견된 뒤 서부로 몰려든 청년들의 아메리칸드림이 경쾌하게 표현되어 있다. 흑인 영가(미국의 흑인들이 노예 시대에 부르던 종교적 민요)는 4박자로 싱코페이션(강김음) 리듬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의 민요인 ‘오! 나의 태양’은 맑은 풍토의 자연 환경을 반영하듯 화려했고 낭만적인 분위기에 운치 있고 빛나는 목소리가 어울리는 민요다. 스위스의 요들송은 산지국가의 메아리처럼 많은 모음으로 불리는데 가슴으로 내는 소리와 높은 가성이 격렬하게 교차되는 발성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로렐라이(기타림의 바위)

처럼 리듬감보다는 중후하고 건실한 규칙적 국민성이 민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로렐라이는 물의 요정이 노래를 부르면 그 모습을 뱃사람들이 뱃을 잃고 바라보다가 암초에 부딪쳐 난파당했다는 전설로 유명한 바위다. 러시아는 수기니시(노동가나 이야기투의 배에 관한 노래)에서처럼 목축과 농업생활이 바탕이 되어 소박하고 순수하며 강건하다.

민요는 역사의 질고 속에 생겨난 민족의 공감대다.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427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인천지역 기업인의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 중 51.8%가 대북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기업인들은 남북관계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중단 위험(53.8%)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지속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타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 ‘고향의 봄’을 함참하며 내면 깊이에 잠재된 민족의식을 깨운 것처럼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서둘러 말고 차분하게 뿌리 깊은 민족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고향의 봄

KIBI '살롬 예루살렘' 행사를 다녀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미학 집사
(양천공동체)

지난해 IBS(Israel Bible Study) 과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불순 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셨다.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나는 지난 6월 7일 이스라엘 현지에서 진행된 '살롬 예루살렘' 행사에서 행사장 이벤트를 준비했다. 사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라는 찬양을 주셨고, 그 찬양의 주제 성구(시 132:13~14)는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메노라 현수막 앞에서 유대인들이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나침반이 되었다. 특히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는 '메노라(Menorah, 일곱 촛대)'를 현수막의 주제 이미지로 넣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노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어졌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다.

금후사역에도 참여했다. 나는 메시아니즘(예수를 믿는 유대인)팀 소속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통곡의 벽에서 열리는 유대인 성인식에 참석했을 때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DUGIT 센터에서 만난 아비 목사님은 텔아비브에 살고 있는 유대인 200만 명을 품고 사역하고 계셨다. 아랍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아랍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알리아(유대인 귀환)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통유대인 사이에서도 비밀리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주시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과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관점 없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역사적인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한 눈에 보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은 면적이 21,946km²로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크기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다. 이 작은 땅에 평야, 사막, 바다, 강, 호수가 공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크게 '올드 시티'와 '뉴시티'로 나뉘어져 있다. 올드 시티는 예루살렘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다. 면적이 가로세로 1km이고, 길이가 약 6km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뉴시티는 20세기 들어서면서 생긴 신도시다. 관공서와 호텔, 빌딩, 고속버스터미널, 유대인 거주지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다사다난한 세월을 보냈다. A.D. 70년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팔레스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4세기경 예루살렘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방문하면서 기독교 부흥기를 맞기도 했지만 7세기경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기독교 건물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 후에는 아랍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이슬람 도시로 변해버렸다. 11세기에는 유럽의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장악하면서 파괴되었던 기독교

교 건물들을 재건축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현재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를 감싸고 있는 성벽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세워진 성벽이다. 20세기에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량학살(홀로코스트, Holocaust)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가 홀로코스트의 정점이었는데 당시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된다. 1945년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독일이 항복하고, 1947년 국제연합(UN)이 이스라엘 국가 설립을 허가했으며, 그 이듬해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에 터를 잡

고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했다. 이로 인해 1948년부터 1973년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4차례에 걸쳐 중동전쟁을 치렀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폭 테러를 감행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분자 색출을 명목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가자지구(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내에서 총돌이 격화되면서 피의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그들이 다시 나라를 건국하기까지

서초C공동체 일본 아웃리치 간증

홍충표 성도
(서초C공동체)

물질과 시간, 노력을 주님께 드리고자 서초C공동체 일본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우리 공동체는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두 달 동안 일본 아사히카와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대상자 82명과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피금식기도를 했다.

몸으로 찬양하는 썸(SUM), 일본어 찬양과 특순도 준비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영적 전성도 치열했다. 나는 발등에 외상성 관절염이 생겼고, 다른 성도들도 발목 부상, 대상포진 등

에 걸렸다. 그래도 공동체 아웃리치 기도모임이 거듭될수록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리라는 확신과 기쁨이 생겼다.

이번 서초C공동체의 일본 아웃리치는 한 마디로 '연합'과 '소망'을 보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아사히카와영광교회 사모님은 나은혜, 주사랑(가명) 선교사 부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나 선교사님 부부와 아사히카와영광교회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합을 사용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됐다.

가장 고대했던 '블레싱 나이트(Blessing Night)'가 막 올랐다. 아사히카와영광교회 성도는 40여 명인데 그들이 전도대상자 82명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동역자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서초C공동체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다.

블레싱 나이트에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한 찬양과 특순을 선보였다. 권사님들이 손수 만든 비빔밥과 전도 대접했다. 낯선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초대된 일본인들은 연신 맛있다고 말하면서 그 음식을 다 드셨다. 그런 일본인들의 모습이 한국의 어느 동네 아저씨, 누님, 동생 같았다.

다음날 주일공동예배를 드렸는데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친밀해졌다. 일본어로 찬양 'God bless you'를 할 때 일본인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았고, 아픈 역사를 간

직하고 있어서 어려운 사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블레싱 나이트와 주일공동예배에 전도대상자 82명 중에서 34명이 참석했다. 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아사히카와 전역이 복음화 되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사히카와영광교회 사사가와 목사님께서 "서초C공동체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며 "저희 교회가 온누리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현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자)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두란노 어머니학교알콩달콩부부학교

본부 4기 지원자 모집

일시: 7월 6일~7일(1박2일, 금요일 오후

7시~토요일 오후7시)

장소: 포천 더생명나무집

강사: 김성목, 한은경, 박상훈, 조용호,

강미향

회비: 20만원(우리는행 1005-381-711

002)

접수: 전화 02-2182-9114, www.moth

er.or.kr

온누리꽃집 직원 모집

자격: 세례교인,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접수: flower@onnuri.org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박정자 권사(010-7281-3691)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채용

분야: 급식교사(조리사)

자격: 조리사자격증 소유자 우대

서류: 이력서(추후 등본 건강진단서)

지원: onnurim911@gmail.net

문의: 031-491-960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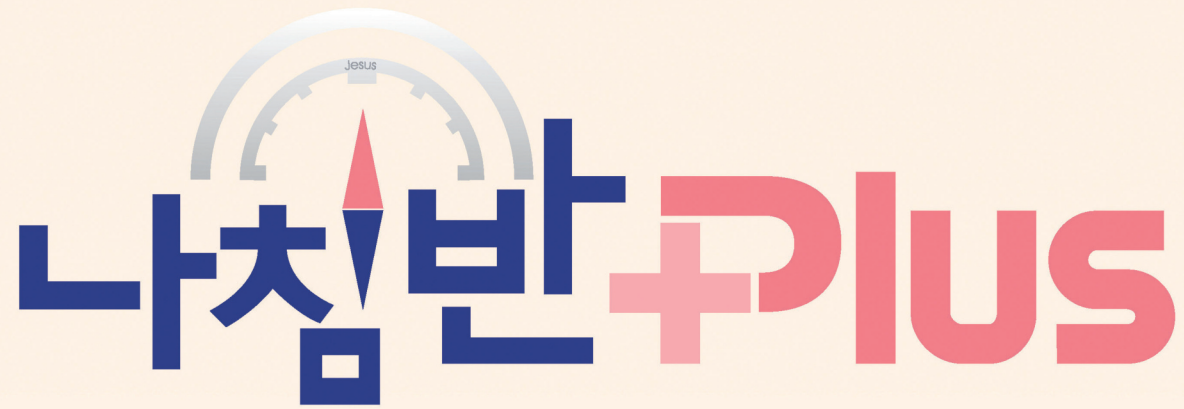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나침반+plus

균형 잡힌 기독교 세계관으로 신앙과 사회이슈를 바라보는 토크 프로그램



시즌2 

‘하나님께로 가는 직진로, 기도’ 편 6월 29일 방송

#금식기도하면 응답이 더 빠른가요? #통성기도는 무섭고 부담스러워요
#회개기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면 용서받지 못한건가요?

‘기도’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풀어보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방송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20분

MC: 이홍렬 패널: 방선기 목사, 고직한 선교사, 신상주 목사 게스트: 이정규 목사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